

해외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

박진욱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이수미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대우전임교원

장미정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 교수

1. 서론

이 글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해외 중등학교에 적용하여 참조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활용 절차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 단위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명칭: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에 2단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이후 5년간의 현장에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보완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7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보급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끝으로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은 목적과 지역, 대상, 교육 환경 등에

* 이 원고는 《한국어교육》 29권 1호에 게재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 적용 연구: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를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에 표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장의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변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이러한 표준과 변용이 가능했던 것은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이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해 주되, 세부적인 항목에서 현장성을 가미할 수 있는 참조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조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주체는 한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교재 개발자가 될 수도 있으며, 교사 개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은 그 양이 방대하고 현장에 맞추어 구체화·상세화를 시도해야 하기에 그 활용 방법이 수월하지는 않다.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제2외국어 교육과정 개발자의 입장에서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과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며, 다음으로 국내외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제2외국어 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이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고, 내용 체계와 상세화의 과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현황

2.1. 해외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 관련된 제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황 조사와 관련 연구들을 통해 교육과정이 사용될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겠다.

교육부(2017a)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외 초·중등학교에 개설된 한국어반은 27개 국가, 1,309개 학교, 115,333명의 학생 수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학교 수는 일본 548개, 미국 155개에 이어 태국 82개, 대만 74개의 순이었으나 학생 수는 태국이 26,365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해외공관(한국교육원)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개설된 한국어반의 수는 2013년에 24개국에서 2014년 26개국, 2015년에는 28개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반 개설은 한국어의 중요도를 그 나라의 교육제도 안에서 인정받음으로써 대학에서의 한국어과 개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인 성장을 촉구하여 지속적인 양적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해외 초·중등학교는 학교별로 정하는 외국어 시수 및 교사의 수급 문제를 포함한 특수성과 더불어 국가별로 외국어별 인지도 및 외국어교육의 역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부재,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교사 및 교재의 부족이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외 중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태국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¹⁾에 대해서는 진정란(2012), 권현숙(2014)의 연구가

1) 2017년 10월 한국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3월에 '태국중등학교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태국에서 공식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가 발간되었다고 한다. 이는 2008년 태국 교육부가

이루어졌다. 특히 진정란(2012:236~255)에 따르면 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 제2외국어는 태국 교육부의 기초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데, 중학교 과정(일부 초등학교 과정 포함)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지정하지 않고 방과 후 특별과정으로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곳이 많으며 수업 시수도 주당 2~6시간 정도로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도 한국 소개나 한국 문화 체험 등으로 한국어 학습보다는 ‘한국 맛보기’ 정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태국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진입 초기 단계이므로 지나친 언어 교육의 강조보다는 학습자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체험 활동과 실제적 실용 표현 중심의 언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현숙(2014:33~35)에서도 태국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조사되었으며, 태국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한국 문화 내용을 살펴보면 한류와 케이팝(K-POP)과 가수, 한복, 드라마와 영화, 음식 문화, 한국의 의식주, 한국의 중고등학생 문화 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어교육 연구 중 해외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언어 학습자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 한국 언어 학습자라기보다는 한국 문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기능, 언어 지식에

한국어를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 채택한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하였다. 태국 정부는 이로써 태국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2018학년도부터 태국 대학 입시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태국에서의 중등학교 대상 한국어교육이 보다 공고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속적인 동기,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의 한국어교육 시수는 많게는 3시간, 적게는 1시간 정도로 한국어를 학교에서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 따라 한국어 선택 시기가 다른데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전체 교육 시수를 고려한 교육 내용 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현지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팀 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 티칭을 고려한 교육 내용 배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2. 국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앞선 조사와 연구들을 통해서 해외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반 조사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제시하며 교육과정의 현실성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이 정리가 되었다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교육과정의 출발 수준과 종료 수준에 대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수준을 결정할 때도 단순히 개발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여러 사례들을 통해 목표 수준 결정의 지침을 얻을 필요가 있다.

2.2.1. 국내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교육부, 2015)을 살펴보면, 국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제2외국어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외국어 과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생활 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I·Ⅱ로 심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 과목 편성

구분		과목명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 중학교 선택 과목	- 생활 독일어 - 생활 프랑스어 - 생활 스페인어 -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 생활 러시아어 - 생활 아랍어 - 생활 베트남어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진로 선택	- 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 러시아어 I - 아랍어 I - 베트남어 I	- 독일어 II - 프랑스어 II - 스페인어 II - 중국어 II - 일본어 II - 러시아어 II - 아랍어 II - 베트남어 II

이 중 교육부(2015:3)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생활 외국어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은 언어 기능의 연마라는 실용적 가치 이외에 인격의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얻어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 보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 주고,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생활 외국어’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이다.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접하는 ‘생활 외국어’를 통해 학습자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격 성장,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이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부(2015:4)에서는 생활 외국어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학습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교육부(2015)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의 경우 독일어, 프랑스어 등 각 과목마다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과목의 교육 목표를 검토하였을 때 교육 목표의 주안점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외국어 학습을 통해 문화 간 소통 능력과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며, 외국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외국어 과목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의 생활 외국어와 교육의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 과목의 교육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2외국어 과목 중 유럽 참조 기준이 반영되어 제시되고 있는 ‘생활 독일어’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제2외국어 생활 독일어의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요소	내용	기능
언어적 내용	발음 및 철자	· 독일어 표준 발음 · 독일어 정서법	· 올바르게 발음하기 · 올바르게 글쓰기
	어휘	·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 어휘 · 고등학교 보통 교과 독일어 교육과정 [별표 II]에 제시된 <u>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25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한다.</u>	· 문맥과 상황에 맞게 낱말 사용하기 · 어법에 맞게 문장 사용하기 · 상황과 의도에 맞게 의사소통 표현 사용하기
	문법	·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문법	

영역	핵심 요소	내용	기능
		· 생활 독일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참고	
	의사소통 표현	· 인물·사물, 감정·의견·건강, 날씨·의식주, 사회생활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 · 생활 독일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참고	
문화적 내용	문화	· 언어문화(관용적 표현, 속담과 격언 등) · 생활문화(의식주, 여가·취미, 기념·축제일 등) · 지역 사정(지리, 제도 등) · 사회·문화(인물, 문화유산, 예술·체육·학술 등)	·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독일어의 경우,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을 축으로 하여 언어적 내용 안에 언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음, 어휘, 문법이 있으며 이외에 실생활 표현으로 의사소통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문화적 내용 안에는 문화라는 핵심 요소 안에 언어문화, 생활문화, 지역 사정, 사회·문화 등 목표어에 대한 폭넓은 문화 지식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교육부(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독일어, 독일어 I, 독일어 II의 내용 체계를 비교하면 <표 2>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각각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언어 내용의 수준은 생활 독일어와 독일어 I이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학습하며 독일어 II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학습한다. 어휘의 수가 각각 250개, 500개, 800개 내외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유럽 참조 기준의 A1(기초적 언어 사용) 수준²⁾에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 제2외국어 한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 교육 목

2) 심봉섭 외(2010:80)에 의하면 고등학교 제2외국어 수준은 대체적으로 1년 100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 동안 400~500개의 어휘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므로 언어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휘의 수적인 면이나 학습 시간만으로 볼 때 이는 회화 수준의 전통적인 등급 구분인 초급-중급-고급에서 보통 가(假)초급 혹은 초급 이전의 기초나 초보라 불리는 수준에 해당된다고 한다.

표는 일상생활에 대한 회화 능력 및 목표어권에 대한 문화 이해 함양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 내용은 초급 수준을 다루지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연속하여 학습하는 경우와 고등학교부터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의 수준을 세분화하고, 교육 항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2.2.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해외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심봉섭 외(2010)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외국어(영어 포함)를 2개 이상 학습하도록 권장하면서 초·중·고 졸업 시까지 자신이 선택한 외국어에 대해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일정 등급을 획득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졸업 시까지 획득해야 하는 수준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에는 제2외국어의 경우 B1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표 3 프랑스 외국어 교육에서 각 교육과정별 획득해야 하는 언어 수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연한 (16세)까지	고등학교
제1외국어	A1	A2	B1	B2
제2외국어	—	A1(선택)	—	B1
제3외국어	—	—	—	A2(선택)

또한 독일에서는 각 연방주 교육부장관 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각 학교의 형태에 따른 외국어 능력의 목표를 표준화해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김나지움 10학년까지 제1외국어로 영어나 프랑스어를 선택하여 B1 수준에 도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김나지움 졸업 시 도달해야 할 등급은 주마다 서로 다르다고 한다.

국가별 제2외국어 교과 편제를 연구한 한상현(2005:218)에서는 국가별 제2외국어 수업 주당 시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상현(2005:218)에서는 국가별 제2외국어 교육의 평균 주당 시수와 제2외국어가 전체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나라의 학제에 적용하여 <표 4>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표 4 국가별 제2외국어 주당 평균 시수와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의 비중

나라 학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초등학교 (1-6학년)	0시간 0%	0시간 0%	(2.1)시간 (8.1)%	0시간 0%	0시간 0%	0시간 0%
중학교 (7-9학년)	(0.7)시간 (2)%	(3)시간 (10.7)%	3.6-(4.0)시간 6.1-(12.1)%	5.2시간 16.4%	3시간 10%	0시간 0%
고등학교 (10-12학년)	1-(2)시간 2.8-(5.6)%	(6)시간 (17.2)%	4.9시간 13.8%	5.9시간 18.8%	2.8시간 9.2%	1.6시간 10.8%

위의 <표 4>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하며, 다수의 국가가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3시간 내외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외에서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주로 중학교부터 시행되며 교육 시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제2외국어 과목에 적용할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할 때 해외 교육과정의 시수(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제2외국어로서만이 아닌 제3외국어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과정

2장의 논의를 통해 해외 중등학교에서 사용될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교육과정 개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자는 지침과 가상의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수립한 지침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목표 등급 설정과 단계 세분화, 교육 목적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내용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제2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비해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시작 시기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적은 대체로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B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B1 수준은 단계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3단계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준으로 3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세부적인 성취 수준을 보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 언어의 계통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구현되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는 국제어로서의 위상 및 한국어 해외 보급률, 계통적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유럽의 외국어 교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표 5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비교

구분	세 부 내 용
한국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학습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유럽 공통 참조 기준 B1의 총괄 척도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여 업무, 학교, 여가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짧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급의 총괄 목표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루는 개인적·구체적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위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 수준에서의 핵심은 일상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장소)도 일상적인 맥락으로 한정하고 있다.

3.2.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설정

해외 중등학교용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총괄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를 몇 개의 단계에 걸쳐 가르칠 것이냐, 각 단계는 몇 시간으로 운영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여건과 환경,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등급별 시간은 최소 72시간에서 최대 200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 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과정도 총 운영 학기, 학기당 총 운영 시간, 주당 수업 시간 등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기에³⁾ 등급별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표 6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시간⁴⁾

목표	등급별 소요 시간	학기	주당 수업 시수	목표(2급)까지 소요 학기
2급	72시간 (총 144시간)	18주	2시간	4학기(2년)
			4시간	2학기(1년)
2급	144시간 (총 288시간)	18주	2시간	8학기(4년)
			4시간	4학기(2년)

<표 6>은 72시간 모형과 144시간 모형으로 학기를 운영할 때 최종 등급인 2급에 도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144시간과 288시간이 됨을 보여준다. <표 6>을 기준으로 본다면 특정 국가의 중등학교에서 총 4학기에 걸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주당 수업 편성을 4시간으로 할 수 있다면 144시간 모형으로 4학기(2년)를 운영하면 되는

3)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면 중학교의 경우 주당 교육 시간이 짧게는 2시간에서 5시간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4시간까지 편성된 경우를 볼 수 있다.

4) <표 6>에서 제시한 시간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등급 당 최소 소요 시간 72시간과 그 두 배 교육 시간인 144시간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기 당 18주는 국내 정규 학교의 학기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것이다.⁵⁾

해외 중등학교용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도 학제, 기관, 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급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등급의 균등적 세분화 단계의 예시

1급				2급				
①	②	③	④	4단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단계

위의 예시는 2급으로 이루어진 목표를 운영 학기 단위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세분화한 모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단계 설정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전체 4학기로 운영을 하는가, 혹은 8학기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위의 방식이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 학기에 따라 균등하게 세분화한 것이라면 아래의 예시는 학습자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단계를 세분화한 예시라고 하겠다.

5)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최종 목표를 2급으로 하되 교육 여건에 따라 등급별 소요 시간에 차이를 두었기에 같은 등급이라도 교육 시간에 따라 학습자의 세부적인 언어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2급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최대치로 본 200시간을 교육 받은 학습자와 최소치인 72시간을 교육 받은 학습자 간에는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교육의 시간에 따라 해당 등급의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등급의 과제들 중 일반적이고 쉬운 과제에 한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하겠다.

그림 2 학습자 연령 및 인지 발달을 고려한 단계의 예시

1급			2급		
①	②	③	④	⑤	⑥

→ 중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	---	---	---	---	---

→ 고등학교

중등학교 학습자의 경우 인지적 발달이 성인 학습자의 경우와 다르다. 대부분의 한국어교육의 경우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내용이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의 연령이 다소 낮은 경우 초급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일상적 경험의 범위가 좁은 만큼 다를 수 있는 주제와 상황, 맥락도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제2외국어 교육 이후 실제 목표어 국가 사람들과의 대면 기회 등을 고려한다면 성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2급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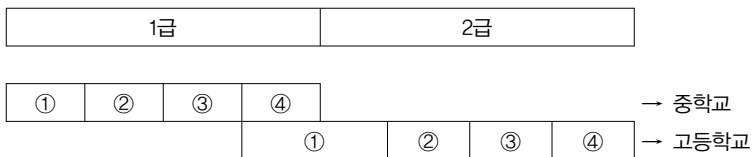
이러한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등급을 2급으로 설정하더라도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내용의 비중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위의 <그림 2>의 첫 번째 모형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6개 단계에 걸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제2외국어 교육이 마무리가 된다면,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2급을 목표로 하더라도 학기마다 다를 내용의 비중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6개 학기 중 첫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는 촘촘하고 세밀하게 수준을 설정하여 낮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어 학습에 조금 익숙해진 5단계부터는 앞의 두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하고 전체 6단계를 운영한다고 하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인지 발달 및 사회 경험이 확대된 것

으로 판단하여 난이도가 낮은 1단계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으로 설정하되 이후 어휘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는 1단계에 비해 내용의 양을 줄여서 학기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급 중반부터 어휘의 양과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마지막 6단계의 경우 지향점은 2급으로 하되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2급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다 단단하고 밀도 높은 수준의 2급을 최종 목표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중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과정은 선택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해외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중등학교 과정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서 선택을 하고 두 과정이 연계되어 진행된다면 단계별 목표가 보다 유기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중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각각 4학기에 걸쳐 연계되는 교육과정이라면 다음 <그림 3>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를 고려한 단계의 예시



중학교 단계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4단계로 설정하여 세밀하고 점진적으로 학습하여 2년간 안정적인 1급 수준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세밀하고 점진적으로 1개 등급(2급)의 내용을 4단계에 걸쳐 학습할 수 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1단계 수준은 중학교의

종료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중학교 4단계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2급의 25% 수준까지를 다룸으로써⁶⁾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하며 수준을 심화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고등학교 단계로 들어설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이후 2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점진적인 단계로 학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2급에 도달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3.3.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과 내용 상세화 방안

3.3.1.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 설정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목표 수준과 등급별 세부 단계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단계별 교육 내용에 대한 선정과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내용 범주로 주제, 기능/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텍스트, 문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범주의 각 항목들은 교육의 목표에 맞춰 유기적인 관계로 재편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는 해당 맥락에서 요구되는 인사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하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이 선정될 것이며, 어휘와 문법은 언어 기술과 통합되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등급에 활용 가능한 텍스트가 고려될 것이며, 학습자 수준과 배경을 고려한 문화적 맥락도 참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구체화할 때에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 환경, 학습자의 요구와 인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중을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등급별 소요 시간이 72시간인 교육과정에서는 제도권 교육으로서

6) 유동적 분지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1단계 수준은 1+ 등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 평가 개발과 현직인 교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언어 지식, 언어 기술, 문화의 비중을 5:3:2로 설정한다면, 144시간 모형에서는 같은 등급 내에서 교육 시간 확보가 보다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언어 지식을 확대하기보다는 언어 기술과 문화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등급별 소요 시간이 72시간인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 예시

$$\text{총 72시간 모형} = \boxed{\text{언어 지식}} + \boxed{\text{언어 기술}} + \boxed{\text{문화}}$$

3.3.2. 교육 내용의 상세화 절차

범주별 비중이 결정되었다면 내용 항목에 대한 선정 및 구체화 작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등급별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이므로 교수요목 설계를 위해서는 이를 학습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선별하고, 상세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겠다.

교육 항목 개발은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등급별 주제 항목 중 중등학교 학습자에 적합하도록 상세화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제 선정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을 다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항목에서 선정, 기능별 과제를 다시 중등학교 학습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상세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주제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중등학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관심과 흥미의 지속으로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 학습’이 주제, 기능,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

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학습자라는 학습자 특성, 즉 인지 발달 단계를 반영하고 학습 시간 등의 환경적 특성, 즉 일주일에 한두 시간으로 대부분 한국어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등학교 학습자가 한국어와 문화를 통합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학습으로 지속적인 한국어 전문 언어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학습자의 ‘지금’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구현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을 예로 제시하면, 2급은 일상생활을 주제로 설정되어 있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주제와 기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능은 구체적인 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형태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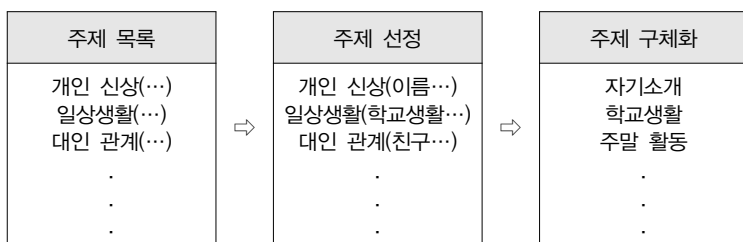
표 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 주제

등급	주제
2급	개인 신상(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성격, 외모), 주거와 환경(장소, 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 시설, 지역), 일상생활(가정생활, 학교 생활), 쇼핑(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 식음료(음식, 음료, 배달, 외식), 공공 서비스(우편, 은행, 병원, 약국, 경찰서), 여가와 오락(휴일, 취미·관심,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대인관계(친구·동료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건강(신체, 위생, 질병, 치료), 기후(날씨, 계절), 여행(관광지, 일정, 짐, 숙소), 교통(위치, 거리, 길, 교통수단)

2급의 주제 목록 중 ‘개인 신상’, ‘일상생활’과 같은 주제는 중등학교 학습자에게도 적합하며 초급 단계에 활용되기에 적당하므로 이러한 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선정된 주제들의 세부적인 주제인 고향 등은 중등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제 목록 중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중등 학습자에게 적합한 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중등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주제 선정의 절차



기능 영역 또한 주제 영역과 같은 절차로 구현이 가능하다. 즉,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항목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세부적인 기능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기능은 과제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의 기능은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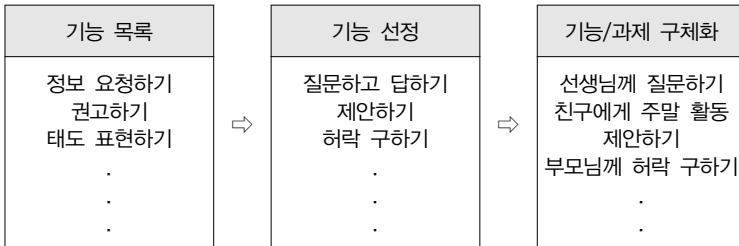
표 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 기능

등급	기능
2급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요청하기, 허락하기/허락 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추측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

2급의 기능 목록 중 ‘질문하고 답하기’, ‘제안하기’와 같은 주제는 중등 학교 학습자에게도 적합하며 초급 단계에 활용되기에에도 적합하므로 이리

한 기능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능 목록 중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중등 학습자에게 적합한 과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능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중등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기능 및 과제 선정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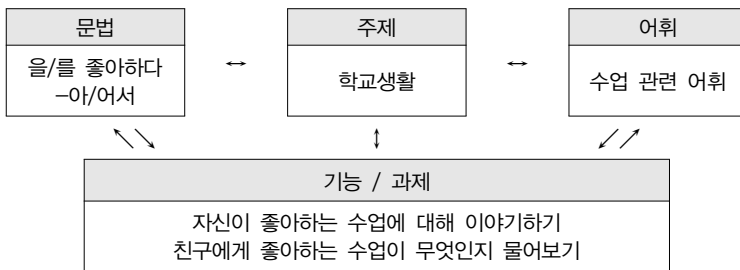


위와 같이 구체화된 주제와 그 주제 하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구체화한 과제가 정해졌다고 하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지식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⁷⁾ 언어 지식은 문법과 어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두 영역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표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선정할 때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법과 어휘 목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과 어휘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참조 기준으로서의 문법과 어휘라는 점이다.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록으로서 타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개발자)의 관점에 따라 등급을 넘어서는 문법이 선택될 수도 있다.

7) 과제를 구체화한 후에 언어 지식(어휘, 문법)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수요목 개발자에 의해 전후 단계가 조정될 수 있고, 또한 기능과 과제 언어 지식에 대한 선정은 회귀적이고 순환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과 어휘의 자체 난이도보다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더욱 중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목록은 사용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문법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의도에 맞게 활용형이나 복합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림 7 주제와 기능/과제, 문법, 어휘의 연계



<그림 8>은 위의 과정을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기능 및 과제, 문법, 어휘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학교생활’을 주제로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의 과제를 수행 하게 하며 이때 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상세화할 수 있다.

3.3.3.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

해외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앞선 절차를 참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할 수 있다.

표 9 교육과정 개발 과정 중 교수요목 설계 예시

등급	2급			2급
주제	일상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좋아하는 수업
기능	감정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 상 세 화	-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 친구에게 좋아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 자신이 어려워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 친구와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조언하기		
		허락하기/허락 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는 한국인과 직접 대면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학교에서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학교 맥락을 중심으로 주제와 기능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능 중 선호 표현하기의 경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심과 취미라는 주제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나 중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서는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좋아하는 수업’이라는 주제에서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주제와 기능을 수행할 때 실현되는 발화나 텍스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명사+을/를 좋아하다’, ‘명사+이/가 재미있다(재미 없다)/어렵다(쉽다)’, ‘-아/어서’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좋아하는 수업이라는 주제에서는 학교 수업 관련 어휘 및 감정과 관련된 어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과 어휘 목록을 참고하고 언어 수준에 맞는 문법과 어휘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하나의 단원으로 교육 항목들을 <표 10>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10 단원 구성 예시

주제	기능 / 과제	문법	어휘
좋아하는 수업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친구에게 좋아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을/를 좋아하다 -아/어서	수업 관련 어휘 감정 관련 어휘
.	.	.	.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등학교 학습자의 주요한 관심 중 하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에 대한 관심, 흥미이며 이러한 ‘나의 감정’이 ‘친구’와 비슷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수업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나를 알고’ 동시에 ‘친구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한국어 학습을 통한 자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 결론

지금까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과정을 개발해 보았다. 한 기관의 교육과정은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교육의 출발과 종료 수준 설정, 학기별 단계 설정, 수업 운영 시간 설정, 교수요목 설계, 평가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개발된다. 특히 한국어교육은 교육 목적에서부터 국가, 지역,

기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실현되기에 기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관리자가 이러한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제2외국어 교육과정》, 교육부.
- 권현숙(2014), “태국 중·고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진옥 외(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 적용 연구: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52쪽.
- 심봉섭 외(2010), 《제2외국어능력평가시험 도입방안 기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선근(2009), “미국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과목에 채택시키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5-72쪽.
- 임형재(2013), “태국 내 한국어교육의 변화와 교육 기반 연구-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문화학회, 75-98쪽.
- 정서영(2015),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2-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45-181쪽.
- 진정란(2012), “태국 중고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8-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35-257쪽.
- 찐티투르영·안경환(2017), “베트남 고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시도와 장점-호찌민시와 붕따우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71-500쪽.
- 한상현(2005), “제2외국어 교과 편제에 대한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교원 교육》 21-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21쪽.
- Council of Europe(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김한란 외 역(2010),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한국문화사.

- 교육부(2017a), 2016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개설반 현황,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8&boardSeq=71270&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rs=moe&tm=040103&opType=N>, (검색일 2017.9.7.).
- 교육부(2017b), 태국 최초 공식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 발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rs=moe&tm=0503&opType=N&boardSeq=72235>, (검색일 2018.1.5.).